



2017년 9월 3일(제839호) 연중 제2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십자가의 역설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구원의 표지가 됩니다.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게 됩니다.(마태16,25) 가톨릭교회는 이 같은 ‘역설’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파라도코스(παράδοξος)에서 유래합니다. 파라(παρά)는 ‘반대’(反)를 뜻하고, 도코스(δοξος)는 ‘의견’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역설은 상반되는 두 개의 의미가 같은 용어에 담겨 있는 모순을 일컫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고 따르라 하시는 십자가가 대표적인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형벌이었고, 고통과 죽음은 인간에게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기에,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곧 “가서 끔찍하게 고통받다가 죽어버려”라는 저주이자 모욕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화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지만, 그로 인한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십자가를 새로운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은 분명 일그러져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로 일그러진 그 얼굴에는 고통이 담겨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 나의 고통을 위로하고,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역설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좌절,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원망하게 되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악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만 여기며 내 안에 악을 그 모습 그대로 쌓아둡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악으로 뿌리내려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들은 악의 모습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 성당으로 달려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일그러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닥쳐온 악을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바라볼 때, 그 악은 ‘역설의 신비’ 속에서 또 다른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악은 그 자체로 나쁜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에게 찾아온 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악 그 자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의 신비’이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고 따르라 하시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최혁(베드로) 신부
토성대(공군 3준비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예레 20,7-9
회답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목말라하나이다.
제 2 독 시 로마 12,1-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마태 16,21-27
영성제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진례를 살다

감사기도의 기원은 예수께서 최후만찬 때에 빵과 잔을 들고 바치신 감사와 찬양의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감사기도는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인데, 먼저 성부께 장엄한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의 과거 구원 역사를 제시합니다. 이처럼 감사기도는 내용과 가치 등 모든 면에서 미사 전례의 중심과 절정을 이루는 장엄한 기도입니다. 미사 전례 총지침은 이 기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기도는 감사와 축성의 기도이다. 사제는 백성에게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마음을 올리도록 초대하고 자신의 기도예 그들을 참여시켜 전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친다. 이 기도의 뜻은 신자들이 이룬 회중 전체가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하느님의 위대하신 업적을 찬양하며 제사를 봉헌하는데 있다. 감사기도는 모두가 존경심을 가지고 침묵 가운데 들어야 한다.”(총지침 78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 쇄신과 이해에 따라 교회는 로마의 전통뿐 아니라 동방의 전통도 모두 중시하고 교회의 값진 유산인 귀중한 기도문을 현대에 활용해야겠다고

예를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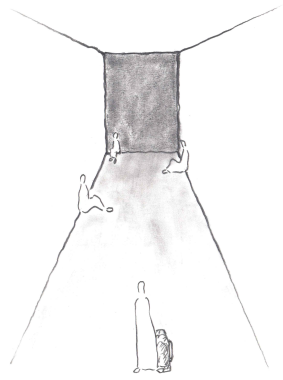
생각하여 종래의 「로마 전문」 외에 세 가지의 새로운 감사기도문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네 가지 감사기도문의 공통되는 본질적인 요소는 감사(대화와 감사송), 환호(거룩하시도다), 연결기도, 축성기원 성령 청원기도(Epiclesis), 성찬 제정과 축성문, 기념 환호(신앙의 신비여), 기념과 봉헌, 일치기원 성령 청원기도, 전구, 마침 영광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기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바치는 대사제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기도는 본성상 오직 사제 홀로 바치도록 되어 있고, 신자들은 믿음 안에서 침묵을 지키며 감사기도에 규정되어 있는 참여를 통하여 사제와 일치하여 기도를 바칩니다. 신자들의 참여 부분은 감사송 대화에서 응답, 거룩하시도다, 축성 다음의 환호, 마침 영광송 다음의 아멘 환호입니다.

감사기도의 양식을 살펴보면, 현행 로마 전례의 감사기도에는 네 가지 양식이 있는데, 제1양식은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로마 전문(典文)이고, 다른 2·3·4양식은 1968년에 도입된 새 감사 기도입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막장에서

막장에서
더 갈 수 없는
이 벽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지,
돌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포기하기엔
내겐 아직
꿈이 남아 있다.

돌아가자
왔던 그 길로

상화이야기

베드로 성인에게 천상의 열쇠를 갠네주시는 예수님



피에트로 페루지노(1446-1523)
1481년 작, 프레스코 회 330 X 550 cm
시스티나 성당, 비티칸

그림 속 광장 중앙에서 보이는 장면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과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밖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장면들이다.

본 그림의 기원은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상의 열쇠를 맡기신다는 구절에서 비롯한다. 마치 무한한 공간처럼 보이는 이 광장에, 세 개의 건물이 그려져 있는데, 중앙 팔각형 건물은 성스러운 공간인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그림 정중앙에 예수님이 오른쪽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황금과 은으로 된 두 개의 열쇠를 넘겨주시는 모습이 보이며, 그 좌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필하고 있다.

아직 초기 르네상스 시기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공간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경에 번잡하게 그려진 인물들의 묘사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의 스승답게 우아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그림이 차분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2주일: 결진 쇠죄목 신부

◆ 교구장 동정

- 철벽 성당 사목방문
 때: 9월 3일(주일)
- 오스발도 파딜라 교황대사 송별 미사
 때·곳: 9월 6일(수) 18:00, 서울대교구 명동 성당

◆ 회의

- 때·곳: 9월 5일(화), 교구청 회의실
- 국장회의: 11:00, 참사회: 14:00, 사제평의회: 16:00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